

인도네시아 연무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

작성자 : 박재봉 (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초빙연구위원)

작성일 : 2013년 7월 2일

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(Sumatra) 섬에서 대규모의 산불이 인접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연무(Haze)로 뒤덮으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떠오름.

-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신속하고 확실한 소방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무문제는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므로 관계 당사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

■ 인도네시아의 연무문제의 원인

- 인도네시아의 연무문제란 수마트라나 칼리만탄(Kalimantan)의 밀림에서 주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 때에 발생한 연무가 바람을 타고 이웃 ASEAN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일컫음.
 - 인도네시아 밀림의 화재는 문순기간인 매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자주 발생하고 바람의 방향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방향으로 불면서 연무문제를 야기
 - 이러한 연무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지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.
 - 가장 심각한 연무문제는 1997년에 발생하여 피해지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뿐 만이 아니라 브루나이, 필리핀 그리고 태국에까지 영향을 미쳐 ASEAN 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음.
- 연무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에서 밀림을 개발하기 위한 화전식(slash and burn) 사전 정지 작업의 결과
-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과 개발권을 획득한 기업들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화전식 정지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때에 기후가 건조하면 대규모의 화재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
- 1997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무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된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가뭄으로 인한 것이며 화재의 규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.

- 인도네시아 정부는 밀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진압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

■ 연무로 인한 피해 상황

- 올해의 연무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국가는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3개국
 - 이번 연무문제가 수마트라 섬의 대형 화재로 인해 말라카 해협 주변의 인접 국가들에게 피해가 집중
 -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리아우(Riau) 주는 이번 화재의 진원지 중의 하나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
 - 많은 수의 노약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
 -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자바섬은 오히려 연무문제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
-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
 -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의 연무문제가 1997년보다 더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6월 20일에 연무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한 반응과 신속한 조치를 취함.
 -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기 오염 수치가 371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발표
 -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의 연무문제로 인해 많은 노약자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한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임.
 - 또한 '정원 도시(Garden City)'라고 하는 별칭이 의미하듯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싱가포르가 연무문제로 인해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
 -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들이 연무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임.
-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번에 연무가 덮친 말레이시아 남부의 조호르(Johor) 주에 있는 200여개의 학교들을 임시로 휴교하는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말라카 해협과 접해있는 3개주에서는 옥외에서 불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
 - 아직 수도인 쿠알라 룸푸르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번의 연무문제를 극도로 경계하며 더 확대되기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

■ 연무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

-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연무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요구.
- 또한 2002년에 합의한 ASEAN 초국적 연무문제 협약(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)을 비준하고 발효시킬 것을 요구. 현재 10개의 ASEAN 회원국 중에 인도네시아 의회만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임.
-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기에는 연무문제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두 국가에게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밀림개발정책이 정부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로 연무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비난하면서 감정싸움이 시작됨.
 - 특히 싱가포르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을 허가한 기업들의 명단과 개발허가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요구하면서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
 -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무문제는 천재지변의 성격이 있으며 당사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비난이나 협박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부각됨.
 - 특히 수마트라 섬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기업들도 밀림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점을 강조
-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장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제안하는 정부 관계자 회담이나 긴급원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함.
 - 회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또한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이 원인
 - 따라서 인도네시아 연무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국가들 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어 올해의 연무문제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※참고문헌

- Associated Press "Singapore haze at worst yet, Malaysia's schools shut",
June 20, 2013
- Jakarta Globe "Indonesia says Singapore 'Behaving Like a Child' over haze",
June 20, 2013.
- Jakarta Post "RI dodges haze blame game", June 20, 2013.
- Jakarta Post "Singapore pressures RI to identify firms behind haze", June 19,
2013.
- Kompas "Singapura deselimuti kabut asap kebakaran hutan di Indonesia", 17
Juni 2013.

Tempo "Kabut asap, sekolah di Malaysia tutup", 20 Juni 2013.